

모심으로 하나되는

포덕 164년 신년사

포덕 164(2023)년 1월 1일

포덕 164년

신년사



포덕 164년 1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신년사 04

천덕송_제17장 공락가 10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신년사

1. 합동배례

1. 천덕송 합창_ 제17장 공락가 / 1절-4절

1. 만세삼창

1. 심 고

1. 폐 식

기념식 후 다함께 수련을 진행합니다.

신년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 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포덕 164년 한 해도 동덕님과 도가에 한울님의 감응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교회와 국가의 발전은 물론 모두가 소통과 공감으로 천심을 회복하여 심화기화하는, 행복한 한울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앙총부는 기본에 충실하며 신뢰감을 주는 교단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부 미진

했던 부분에 대한 질책도 있었지만, 교단의 화합과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교인들로부터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느껴진다면 더욱 분발해 달라는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앙총부는 동덕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 당면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며, 교단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천도교가 역사의 뒤꼍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전면에서 나서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 달라는 세상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답을 찾아 실천하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천도교에 대한 사회적인 바람과 요구가 커진 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도 커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교역자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총부는 기념식을 할 때 외부 문화행사를 조금씩 줄이고 ‘다 함께 수련’으로 마무리하는 등, 동덕님들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장 빠른 길은 기본을 먼저 닦는 것이다.’란 말처럼 주춧돌을 새로이 놓는 심정으로 내실을 다지고, 교단 발전 방안들을 구체화하여 한 단계 나아가는 교단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는 동덕여러분!

봉사하는 자세로 교단 발전을 위해 총부 및 교구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도 동덕님들과 더불어, 바르고 조화로운 교단 운영으로 천도교 역사의 새 장을 차근차근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천도교의 근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운데서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

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개선해 나가며,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연원회와 현기사’, ‘종학대학원과 교서편찬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모두 합심하여 시대와 짝하는 교리 연구와 세상 사람들의 물음과 필요에 부응하는 포덕·교회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국가 사회에 천도교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대외 홍보에도 중점을 두어 점차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켓용 경전과 쉬운 가로 경전, 천도교인을 위한 단계별 교양 교재의 발행을 통한 기초 다지기는 물론, 교리와 교사, 수련이 조화를 이루는 교단의 포덕교회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소통하는 교단 기풍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천

도교에서 소통이란 오심즉여심의 심법을 체득하고 체행함은 물론이고 동덕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서로 공경하여 신뢰감을 쌓아 동귀일체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지방 교구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구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려 합니다. 권역별 행정 교구장을 중심으로 지역 교구장들의 모임을 상시화하여 교구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단은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천도교의 위상을 알리는 역할을 다하여 안팎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웃 종단의 지도자와 정치, 사회, 문화계 원로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분야에 대한 천도교단의 의견을 묻고 있으며, 천도교단의 참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단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천도교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정신 확립과 평화통일은 물론이요, 인간성 회복과 도덕 질서 확립, 환경보전 등 인내천 사상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동덕들은 수련을 통해서 자아 완성을 이룩하고 교회적으로 동귀일체를 이룩하여 보국안민 광제창생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역자 양성과 수련의 활성화입니다. 현기사와 종학대학원의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교역자는 일정한 연수 과정을 거쳐 교역자의 자격을 부여받고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여성회를 필두로 수련문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수련은 천도교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며, 실제 체험을

통해 한울님의 감응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수도원 또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도원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동덕님들이 수련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정심 수도로써 한울 마음을 지켜 사인여천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구와의 소통과 활성화를 위해 새해부터는 중앙총부 교직자들의 시일(일요일) 정상 근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기념식 또한 지방에서 봉행할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새해의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성, 공경, 믿음을 다하여 합심하고 협력하여 나아갑시다. 그 출발점은 수도연성을 바탕으로 한 자아완성과 동귀일체에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도의 운수는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덕님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경천명(敬天命)

순천리(順天理) 하여 지상천국 건설에 앞장섭시다.

새해에는 동덕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심고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4(2023)년 1월 1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종 심고

제17장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 -에 소 리 소 리 울 리 -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 -리 세 간 악 마 도 망 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 -덕 널 리 널 리 퍼 -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 -람 은 누 리 에 부 -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틀 올 리는 곳 에 궁 울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흥 초 록 봄 - 언 덕 에 온 갓 새 부르 짓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한 이 - 품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 chondogyo.or.kr](http://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